

1. 자기소개 및 생활 나누기

마지막 세미나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좋아하는 건 뭔지 얘기해주세요. 지난 주에 봤던 분들도 일주일 간 어떻게 지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자유롭게 본인이 나눌 수 있는 만큼 편하게 자신의 일상을 공유해보아요.

2.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 약속 몇 가지

하나. 발제문, 심화 리딩 등을 읽거나 토론을 하다보면 잘 모르겠거나 이해가 안 되는 개념어들이 종종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군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편하게 손 번쩍 들고 그게 뭐냐고 물어보아요.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최대한 쉽게 쉽게 대답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아요. 누군가가 한 답변에서 부연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도 편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해요.

둘. 우리가 읽고 토론했던 글들은 결국에는 누군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길을 드러내는, 하나의 '해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글을 읽다보면, 아무리 훌륭한 이론가의 글이라도 정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면 세미나 자리에 들고 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보아요. 그러면 세미나도 더욱 풍성해질 수 있을 거고, 서로의 지적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셋. 내집에서 생각하고 절대 부담 가지지 말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요. 발제문을, 또는 세미나준비단과 명운을 달달 털어도 좋아요. 세미나의 주제와 이어지는 흥미로운 텍스트, 그림, 음악, 영화, 웹툰, 웹툰 등등이 있다면 가지고 와서 공유해주세요. 정말 큰 복을 받으실 거예요. 혹시 정말 이 얘기는 꼭 나누고 싶거나, 발제를 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기획단에게 미리 연결을 주시고 발제를 준비해 보세요. 이 분도 역시 큰 복을 받으실 거예요. 한 문장, 이야기 한 토막이라도 이야기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같이 꼭 나누어보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우리 모두 이 세미나가 자기의 경험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해요. 세미나 내부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외부에서 할부로 소비하거나 이야기하지 않도록 해요.

넷. 가장 중요한 부분. 혹시 세미나를 하면서 불편한 부분이 생긴다면, 절대 혼자서 삭이지 말고 세미나 기획단, 혹은 세미나 자리에서 모두와 함께 꼭 같이 이야기 해보도록 해요. 결국 이 세미나도 모두가 잘 좀 살아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세미나로 누군가가 소모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누군가 자치거나, 소모되거나, 불편해지는 세미나라면 세미나를 할래두경 안 하느니만 못 하니까요.

3. 읽을거리와 이야기거리 - 찬찬히 읽고 함께 고민과 경험, 지혜를 나누어 보아요.

첫 번째, 성평등한 데이트로 건강한 관계 맺기

데이트할 때 누가 밥값을 내고 누가 커피를 사야 하나요?
연애의 기념일엔 누가 이벤트를 하고 누가 어떤 선물을 사야 하나요?
결혼하면 누가 가사노동을 하고 누가 생계를 책임지죠?
그리고 누가 집을 사고 누가 살림을 장만하나요?

아직도 이런 논쟁은 상상치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연애가 결혼으로 직결되는 것도 아닌데, 이성애적 관계에서는 특히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죠.

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논쟁 끝에 '원장네', '김치네'가 만들어지고 여성이 혐오의 대상이 되죠.

'여자답게' 연애하는 것은 무얼 의미할까요?

또 '남자답게' 연애하는 것은 무얼 의미할까요?

붙여지는 연애강좌엔 남자는 어려야 한다. 여자는 어려야 한다는 규칙도 많아요. 대체 어떤 말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 꼭 역할이 정해져 있어야 하나요? 이런 물음표들에 관해 이야기해봐요.

- 성역할 개요

MBC '우리 결혼했어요' 성역할 고정관념 여전

여성민주회 미디어운동본부 보고서-"남자는 이벤트, 여자는 수동적 반응에 그쳐"
미디어스, 송선영 기자 2008.05.28

최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MBC <일요일일요일밤에> '우리 결혼했어요'가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을 고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민주회 미디어운동본부(소장 강혜란) 모니터분과는 지난 27일 발표한 '리얼리티 쇼 오락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문제' 보고서에서 지난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 4주간 모니터링 한 결과를 소개, 성역할 고정관념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벤트하는 남성과 이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여성

한국여성민주회 미디어운동본부는 남성들의 이벤트가 프로그램의 중심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여성은 수동적, 남성은 능동적으로 역할을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손에 쥐여주는 역할은 남성이 맡고 이에 여성들은 불만족스러워하거나 감격하는 등의 반응만 보여게 된다는 것이다.

커들들 간의 갈등 해결에서도 남성은 '적극적', 여성은 '소극적'인 모습으로 등장해 쌍방의 노력보다는 남성의 주도적 역할로 상황이 결정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그 예로 정형돈에 대해 사오리는 끊임없이 간소리를 하지만 더 이상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으며 서민영은 투정 부리는 것에 그치지만 크라운제이는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한다는 점을 꼽았다.

한국여성민주회 미디어운동본부는 새로 등장한 연상연하 황보-김한중 커플 김한중이 "땀을 흘린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한 것과 관련, "남성이 결혼생활을 이끌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벗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남성 출연자들이 가정에서의 가장 역할을 재연한 것으로 성역할 고정관념 실현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내조형' 아내의 고정화-"성역할 고정관념 깨고해야"

보고서는 또한 솔비와 조여정의 모습을 통해 성역할에 대한 이 프로그램의 고정된 시선을 찾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가상 남편 앤디의 콘서트에 도시락을 준비해 찾아가는 솔비의 모습은 타 프로그램에서 활발하고 적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녀에게 '조용히 내조하는 여성파트너'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커틀인 '이휘재-조여정' 커틀의 경우, 9살 연상인 이휘재는 '활동적인 남성상'으로, 조여정은 '조용한 한오양자'로 부각돼 진부한 캐릭터를 선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기존의 짝짓기 프로그램에서 연애 과정에서 남성의 능동성과 일방성을 남성다움으로 치장하고 여성을 위해 이벤트 하는 남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그리고 있다"면서 "여성의 수동성을 당연하게 여기는 남녀관계의 구도가 '우리 결혼했어요'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연예인들의 가상 리얼리티 결혼 쇼라는 형식과 오락 프로그램의 재미에 가려진 성역할 고정관념의 문제는 이 프로그램의 높은 시청률을 고려했을 때 제기되어야 할 부분"이며 "주말 가족시청시간대에 편성돼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결혼'과 '가족' 내 남녀의 성역할' 문제를 보다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우리 결혼했어요'는 4방의 가상 커틀이 각각의 결혼생활을 보여주는 가상 리얼리티 쇼로 최근에는 크라운 제이-서인영, 앤디-솔비, 황보-김현중, 이휘재-조여정 커틀이 프로그램에 등장하고 있다.

생각거리.

- '남성=능동' '여성=수동'의 도식이 강력히 여겨질 때,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이 생길까?
- 이 도식을 수행하기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들은 얼마나?
- 요즘에 들어서는 '능동적인 남성', '수동적인 여성'의 경계가 조금씩 해체되어가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자.

가부장적 연애각본 학습하기

SBS '만명에게 물었습니다' 아심만만
일다 금오해방 2004-06-07

[가부장적? (남성인) '가장' 또는 예비 '가장'이 가족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것, 가부장적 사회 연에서 남성 개인은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마땅히' 갖출 것을 강력히 권장 요구 받는다(가부장제의 규범성). 남성 개인이 가정을 온전히 책임질 능력을 배우거나 갖출 기회가 없었던 경우에도, 누군가는 그 개인이 '남자로 태어났기에' 충분히 가장이 될 수 있다고 상상되는 경우도 많다. (가부장제의 신화성). 이러한 요구와 상상력은 '가정'을 할상하기 이전의 단계로 여겨지는, 연애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

도무지 남자(여자)는 알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 남녀의 차이를 생물학적이고 운명적인 차이로 일반화해서 설명하는 책들이 자주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는 것도 그런 '알 수 없음'을 반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경우 '여자(남자)는 어렸다'라고 할 때의 여자와 남자는 보편적인 성의 구분이라기 보다는 대부분 이성애의 대상으로서의 여자와 남자다. 그리고 그 이성애적 관계에서 설명되는 남자와 여자는 명백하게도, 하나의 상상적 범주다.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그 상상적 범주의 성격(여자들은 본위기에 약하다 등)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경우도 많지만, 그 성격에 부합하지 않을 때(남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런다 등)이기도 하다. 여자(남자)들은 대체 왜 그럴까? 하다가도 '뭔데 그런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맞지 않으면 '남자(여자)가--'라고 타박을 주는 상황은 종종 모순적으로 겹친다.

어떤 집단이나 선입견, 혹은 기대되는 특성들은 있기 마련이지만, 유독 연애관계에서 있어서는 남자/여자는 범주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됨과 동시에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된다. 사할만한 원래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성별고정관념이 극대화된 형태로 전제된 '연애 각본'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연애' 그리고 그렇게 고정화된 연애각본의 역사는 그다지 오래된 것이 아니며 실로 근대적이다. 그런 각본에 따른 '연애'를 관하는 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운 SBS 예능 프로그램 '만명에게 물었습니다' 아심만만(이하 아심만만)은 프로그램 자체가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런 연애각본의 형성과 유통, 그리고 그 성격을 일면 보여주고 있다.

아심만만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의 순위를 매기고 출연자들이 그것을 맞추는 프로그램이다. 솔직함, 대담함, 폭로성 등을 강조하며 출연자들의 경험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경험과 서술 역시 정형화된 각본들과 뒤섞여 있다. 아심만만의 5월분 방송을 통해서 이를 돌아보도록 한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연애 시나리오

출연진의 말에 "아, 그렇구나"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던 남자 사회자가 외친다. "여성분들 받아 적으세요" 혹은 "그런 방식은 안 통해요 그러나 맨날 깨는 거여." 이 프로그램은 종종 하나의 정보전달 프로그램임을 자처한다. 여자들은 이할 때 감동하고 남자들은 이런 것을 기대한다는 식의 얘기.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사자인 남자와 여자가 이미 더 잘 알고 있어야 할 텐데 사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성애 관계의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남녀의 본질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성애 관계의 기대치를 어떻게 충족시키냐에 대한 것이고 그 결과로 '실패와 성공'으로 갈리는 종류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당연하고, 옳다는 식의 연설들이 발생하고, 학습된다.

"남자들은 스킨십을 충동적으로 하고, 여자들은 감성적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흥분하면 비백 안고 그러잖아요. 영화에서도 보면은"
"이게 뭐여, 보도 들도 못하고 책에도 안 나오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안 하잖아요?"

이렇듯 출연진들은 경험의 서술들 사이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여유라던가, 그 생각이 맞을 거라는 근거로 몇 가지를 대는데, 노래가사, 영화, 비디오, 책, 드라마에 대한 언급들이 빠지지 않는다. "남자들만 있는 술자리에서 기선 제압하는 방법"이라는 연애문제와 다소 떨어진 주제였을 때 출연진들의 경험만으로 답을 모두 맞췄던 것과는 대조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성애 관계는 '개인적인'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에서 기대되는 행동의 규칙들은 권고하고 사회적인 틀을 통하는데, 대표적인 금기들은 성별고정관념에서 어긋나는 행동들이다.

"여자가 먼저 스킨십 더 해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자가? 여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또한 남자거나 여자만 당사자가 "나는 아니지만 여자(남자)들이 그렇다"는 식의 서술을 하는 경우도 많다. 출연진들은 자신을 그 '남자/여자'를 자신과 동일한 집단으로 가정하는 동시에 그럴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으로 설정하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을 맞는다.

이성에 관여의 이상화, 그리고 연애 관하는 사회

근대적 개념의 연애에서 남자다운 남자와 여자다운 여자의 낭만적인 이성애는 지배적인 경향이며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유행의 영향 역시 많이 받는다. 연애상태에 대한 선호도 고정불변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좋은 것, 허용되는 것, 부러움을 사는 것, 인정을 받는 것 등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다.

"전 연상이 좋았어요." / "어니 왜? 요즘 추세가 그 반대데요?"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누나' 만나게 게 유행이었어요."

"남자는 이성의 열매다 보다, 동성의 한마디 칭찬에 넘어가는 거예요." (친구들의 부러움을 살만한 이성을 사귀고 싶어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며)

"경쟁에서는 상대선수가 있어야 기록이 좋습니다."

이성애의 경험에 없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연애할 것을 충고 받거나 때때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연애도 못 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은 이러한 속성과도 직결된다. 이성애 관계의 '성공'에 투영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낭만적 사랑이 아니다. 그것으로 포장된 사회적 지위와 자위의 상징이다. 그러한 규범과 자위의 일환으로서의 '이성애'를 중심으로 두고, 이성만만한 연애하지 않는 사람, 이성에게 인기 없는 조건, 이성간의 관계가 어딘가 등을 끊임없이 회화화한다.

대표적인 것이 상황채널 할 때 병을 찾는 방식이다. 젊고 인기 있는 남자는 남녀 병을 지워주는데, 장난을 치거나 인기 없다고 농담 때는 [특히 남자] 동성애 학을 지워서 과장된 코미디를 연출하곤 한다. 몸에 좋다는 칭찬에 열차리의 동성 출연자가 팔을 질러보자 정색을 한다.

"이유진씨(여자)가 만겨야지."

그러다 보니 의심만명의 순위권 대답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기타 순위의 대답들이다. 상위권에는 예측 가능한 고정관념적 행동들이 많다. 종종 하기 싫어도 멋진 남자, 멋진 여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행동과 남자다운, 여자다운의 부담스러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센 척 했다가 후회 했을 때"의 답변들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추운데 여자친구한테 옷 벗어주고 너무 추웠을 때", "여자친구 바래다주고 돌아오면서 무시했어요", "여자친구 업었다가 다리 뭉칠 때" 등.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대되는 관계 밖의 것들은 주로 '실책'으로 묘사되고 농담의 소재가 된다.

지금껏 수십만 명의 '마음'을 들여왔을 의심만민을 모두 시청했음지라도,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개별적인 인간은, 그리고 그런 두 인간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당연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다. 하지만 그 관계가 고정관념으로 형성되고 그것에 부합할 것을 요구 받을 때, 더더욱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된다. 이성애, 그리고 사랑에 대한 온갖 '속보'들이 난무하는 현대사회에서도 이성애의 문제들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되고, 그 모습에 맞추고 있는 사람들 역시 자연스럽게 없다.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던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규범과 고정관념들을 깨는 것에서 그 수수께끼는 풀려나갈 여지들이 생길 것이다.

'젠더화 된 사랑'의 산물로서의 연애

[젠더(Gender)]란? 생물학적 성별, 성적 지향, 성적 욕망, 성적 / 성별적 정체성 등에서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부분들을 의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명확히 지나게 되는 생물학적 성별(sex)과 달리, 젠더는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성을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젠더 스터디(Gender study)는 여성다움

과 남성다움이 사회적 체계 내에서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방식과 양상을 주로 다루는 학문이다.

젠더화 : 생물학적 여성 / 또는 남성이 '사회-문화적'으로도 '여성' 또는 '남성'이 되는 것을 학습하는 것. 또는 그 과정. 젠더화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여자가 되었다.', '남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현상들을 생각해보거나 어떤 것이 '여자다운' 또는 '남자다운'으로 여겨지는지를 돌아켜보면 비교적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젠더화'를 두고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하고 있다. '사회-문화적으로 '완전한'(완벽한) 여성 또는 남성은 없기에, 한 개인이 완전한 '여성' '남성'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성 또는 남성이 되기 위해 여성다움 또는 남성다움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끊임없이, 여러 방식으로 '수행'(perform)한다."

사회문화적 맥락 속 이해의 필요성

연애가부터 '연애'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사람을 사이에서 자리 잡게 되었다. 과거 '연애'만 결혼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적 측면에서 이해되었다. 하지만 최근 '연애'만 그 자체의 의미로 결혼과는 별개의 하나의 '경험'으로 생각 되어 지고 있다. 7살짜리 꼬마 아이부터 60세 노인까지 모두가 자연스럽게 남녀의 연애를 통해 사랑을 나누며 때론 삶의 활력을 찾는다. 이렇듯 연애는 그 자체로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연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과거 '연애'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개인의 감정에 기반을 둔 개념으로 전적으로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믿었다. 서로에 대한 선택은 어떠한 개인적 차이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설명은 사회경제적으로 같은 계급 간의 연애가 많아 이루어진다는 점, 일정한 연애의 패턴(pattern)이 존재한다는 점, 그 속에서 남녀의 성격들이 개별적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무엇이 '연애'인지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불륜'과 게이(Gay)커플의 사랑은 일반적 연애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같은 대학 남 A와 여 B의 사랑은 어떠한가. 이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 연애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연애와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반적 범주와 행위자를 정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일정한 맥락인 것이다.

살스비에 의하면 '사랑'은 개인의 감정이지만 인간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과 같은 개인감정 또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일정한 통제와 조정을 받는다는 것이다(살스비, 1985) 결국 누가 연애의 대상이 되며, 어떻게 연애가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가 필요하단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은 한국사회의 연애를 이해해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사회의 어떠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해야 함을 뜻한다. 한국 사회에서 '연애'에 대한 달론을 펼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최근 몇 십 년 내의 일이다. 근대화 이후 유교적 전통이 아직은 크게 자리 잡았던 우리 사회에서 연애(자유연애)는 비판의 대상이자, -이는 여성에게 그 비난이 집중 되어졌다. -서구적 풍습의 하나로 문란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후 근대화와 산업화 등을 물결을 겪으며 우리 사회에서 연애는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유교적 전통이 많이 완화되고 연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유교적 전통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연애의 조정자로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순결 이데올로기'와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90년대에 들어서며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주장하는 운동과 이론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이는 '연애'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동안 연애에 있어서 '수줍은' 사랑의 행위자였던 여성이 보다 자신의 사랑에 당당한 '주체'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남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유교적 전통은 중요 코드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음 논리들을 전개 해 나가도록 하겠다.

낭만적 사랑과 연애 속 드러나는 권력 갈등

어릴 적 여성들은 '동화'를 통해 낭만적(Romantic)한 사랑을 꿈꿔 왔다. 유리 구두를 통해 왕자의 선택을 받은 신데렐라와 왕자의 키스로 깨어나는 백설 공주 등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공주'로 만들어 줄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 '왕자님'을 꿈꿔온 것이다. 이 후, 어릴 적 꿈꿔온 낭만적 사랑은 이 후, 미디어와 인쇄 매체로 매개체를 옮겨간다. 드라마와 영화, 로맨스 소설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는 어릴 적 '왕자님'보다 현실 속에서 더 구체화 된 새로운 '왕자님'을 꿈꾸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낭만적 사랑의 신화는 누가 그 신화를 이루는 인물 이 되며, 어떠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이면에는 어떠한 것이 숨겨져 있는가.

현대에서 낭만적 사랑의 신화 속 남성은 부와 권력을 소유한 자이며, 여성은 부와 권력은 상대적으로 결핍되어 있지만 귀엽고 밝으며 남성의 어떠한 결함을 감성적으로 치유해줄 수 있는 여성이다. 이 둘의 결합으로 이 신화는 완성된다. 우리는 이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며, 낭만적 사랑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의 페미니스트들은 낭만적 사랑은 여성을 중심으로 하여 남녀 사이의 권력 관계를 '남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은폐 시키고 있다고 비판을 가해 왔다. (이박혜경, 2007) 60년대 이후 페미니즘의 물결이 남녀의 사랑을 보다 명시적인 성별 권력 관계로 문제화 하며, 여성을 사회, 경제적 억압으로 묶어둘 수 없게 되자 만들어진 복합적 문화적 기제로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을 지적했다. 이는 여성들의 관심을 '사랑'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어떠한 정치적 권력에 집중하기 보다는 자신의 여성적 가치를 높여 줄 외로와 사랑에 집중하게끔 했다는 것이다. (피아미스톤 1983)

여성주의 인식론에서 지적하듯, 낭만적 사랑은 남녀의 불평등한 계급이라는 관계 아래 시작된다. 이 점은 현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고, 남녀의 고정관념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대의 드라마와 로맨스 소설에 등장하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 역시 조금 타협된 불평등한 관계일 뿐 그 근본적인 틀은 과거와 같다. 사랑은 두 사람의 행위이다. 그런데 이러한 두 사람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은 어떠한가? 남자에게 사랑은 사랑을 '하는 것'으로, 여자는 사랑을 '받는' 존재로 나타난다. 이러한 말하기 방식은 남녀의 권력화된 역할 논리 그대로 투영한 것이다. 남성은 사랑을 '하는' 주체로써 능동적 존재로, 여성은 남성에게 사랑을 '받는' 수동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듯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듯 한 연애도 실질적으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남녀의 권력화된 체계 아래 서로의 성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랑에 있어서 일종의 남녀의 '성 각본'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속에서 남성은 여성에게 '여성성'을 강요하게 된다. 이는 사랑을 지속하기 위한 감정적 소모의 역할을 여성에게 강요한 것이다. -이는 남성의 경제적 권력의 뒷받침 아래 강요된다. - 이러한 성역할(성애)의 대상이 되는 것)한 각본에 포함 되지 않는 그 외의 여성들은 '연애 상태'로 제외되며,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의 주체자로 제외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문화적으로 계급되는 사랑의 성 각본 아래서 남성은 여성을 보호 하는 강인한 존재 이자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로 환원되며, 여성은 외로와 가꾸기와 남성에게 기대는 존재로써, 남성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존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남성은 경제적 부와 권력을 관계에서 여성에게 제공하고 여성은 이에 사랑의 지속을 위한 감정적 소모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게 기대어 있는 존재로써, 남성의 권력이 위위를 인정 해야만 한다. 이에 반할시, 남성은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위협을 느끼며, 여성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연애라는 관계가 서로의 성별화된 여성-남성으로써의 역할의 수행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성이 남성의 권위 혹은 권력을 침범 했을 때 관계는 지속 될 수 없음을 여성 스스로 깨닫게 하며, '남성=공적권력', '여성=사적권력'이라는 이분법화 남성중심주의적 사회 정치적 맥락을 연애를 통해 더욱 확고히 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주의 인식론을 통해 바라 본 한국여성의 연애와 결혼

- 드라마 <달콤한 나의 도시>를 중심으로 한 연구)

생각거리.

-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남성의 '공적 권력'(예: 사회적 능력, 경제적 권력 등의 문화적적 자본)이 여성의 '사적 권력'(예: 관계의 '능숙함', 여성적 매력, '여자다운' 보살핌 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남성의 '공적 권력'이 언제나 여성의 '사적 권력'에 비해 권고하고 강력한 것일까? 그렇다면 오히려 연애라는 사적 영역에서나마 여성의 '사적 권력'이 남성의 '공적 권력'을 강력히 압도하는, 이른바 여자가 강이 되는 사례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 근래에 들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공적 권력'과 '사적 권력'을 함께 가질 것을 요구받거나, 남성 또는 여성이 '공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적 권력'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 능력이 곧 매력 같은 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자.

[[김정훈의 범용]진심을 안 주는 남자<2> 여자들의 '남성 의존적 성향'과 '만나고 싶은 남자']

연경가의 술자리에서 '방송인 사유리의 평언들'을 정리해 놓은 포스트를 본 적이 있다. 공감 가는 멋진 글귀들을 보며 감탄하고 있는데, 그 포스트를 보고 있던 남자후배와 여자후배가 실감어를 벌이기 시작했다. 논쟁의 발단은 밥을 사주는 것이 싫은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싫다'라는 문장이었다.

남자후배가 "사유리는 정말 개념 있다니까, 요즘 여자들처럼 다르게"라고 말하자 여자후배는 "요즘 여자들이 왜? 오히려 내 주위엔 여자들이 더 내는데?"라고 반문했다. 남자후배는 "소개팅의 경우 남자가 별로일 땐 여자들이 먼저 돈을 내려 하기도 하지만, 연애 들 경우엔 남자가 내걸 바라는 게 대부분 여자들"임을 재차 강조했다. 여자 후배는 "내가 그런 여자들만 만나니까 그렇지"라며 조소를 보냈다. 남자후배는 말을 말자며 내게 속삭였다. "저는 자기도 남자한테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과 당신 주변의 여자들이 실제로 남자에게 의존적이나 아니냐의 진위여부가 아니다. '김치녀'를 운운하는 공격성 글을 형상에 게시 하진 않더라도 상당히 많은 남성들이 여성들의 남성 의존적 성향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사실은 분명하다.

물론 굳이 문제 삼지 않는 남성들도 많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그런 여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굳이 문제를 제기해 스스로의 체면을 깎아내리기 보다는 당연하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되려 잘 활용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런 종류의 남자는 당신에게 상처를 줄 확률이 훨씬 높다.

문제를 제기하는 남자와 그렇지 않는 남자. 당신은 어떤 남자를 선택하고 싶은가? 전자를 택했다면 당신이 조금 피곤할 뿐 상처받을 일은 없을 거다. 이들은 요령이 부족할 뿐 사랑에 대한 의욕은 충만할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여성이라는 집단을 비판 하려던 게 아니라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속상해서 불만을 토로하려던 게 원인일 수 있다.

후자는 조금 다르다. 이러한 남성은 여성에게 뭘 받는 것에 굳이 의미를 두지 않고 자신이 주는 것에도 진심을 담지 않는다. 여유로운 행동으로 여자를 즐겁게 하는 요령은 갖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허무하다. 남성 의존적인 여성을 만난다고 해도 그걸 고쳐서 견잡은 관계로 나아가야겠다는 의욕이 없다. 보기 싫을 정도가 되면 헤어지면 그만이니깐. 당신은 그가 아는 수많은 여자들 중 한 사람으로 단정지어질 뿐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대체 왜 그는 나를 그렇게도 남성 의존적인 여자로 생각해 버리는 걸까? 나도 아니고

내 친구들도 전혀 아닌데, 왜 남자들은 요즘 여자들이 다 그편을 아는걸까.

다음의 여자들을 살펴보자.

- A. "아빠가 벤츠를 타지 못 하는데 내가 어떻게 타? 그럼 벤츠타는 오빠라도 만나야지"
- B. "결혼 할 때 집은 남자가 해야지. 나도 뭐 대단한 집을 꼭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개념 없는 여자는 아니냐. 그냥 변두리 아닌 도심에 24평정도 전체 정도만 구하면 되잖아?"
- C. "미팅할 때 남자가 돈 내는 거 당연하지 않아? 우리가 놀아 줬잖아. 근데 돈까지 내야해?"
- D. "더저페어를 의식하면 머리 쓰는 거 같아서 싫어. 좋아하면 남자가 더 낼 수도 있잖아"

위 대화들은 허구가 아닌 실재다. 필자에게 고민을 토로한 여성들이 했던 말이다. A는 누가 봐도 과학계 남성지존적인, 다분히 비판받을 수 있는 말을 했다. B가 한 말은 A보다 덜하긴 하지만 요즘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주제로, 여전히 남자의 경제적 능력을 과학계 요구하고 있긴 하다. C와 D 역시 여전히 남자의 희생을 요구하곤 있지만 A와 B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다. 대다수의 남성들은 특별한 불만 없이, 혹은 불만이 있더라도 속내를 숨긴 채 C와 D 정도의 행동은 무난히 받아들여주는 편이다. 특히 D까지 부정할 경우엔 짜질한 남자라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니까.

A, B, C, D는 분명히 다르다. 하지만 그것을 공통하는 줄기가 있다면 남자들은 여자들은 동의할 것 같다. "요즘 여자들 다 그래"라는 남자들의 말에 여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나친 부정을 하는 이유는, 마치 본인들 A, B와 같은 말을 하는 여자도 취급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빠서다. 남성들이라고 해서 D와 A의 차이를 모르는 건 아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특별히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대다수의 남성들은 직·간접적 경험을 바탕으로 B-D를 함께 연계시켜 버린다. 이때 A와 B의 간극은 크지 않으므로 A까지 함께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은 개인의 경험치가 영향을 미친다. "그런 여자들을 만났으니깐 그러는 거지"라는 여성들의 말처럼, A와 B를 만나 본 적이 없는 남자는 C와 D의 연행을 확장시키지 않는다. "여자를 잘 아는 사람과 여자를 모르는 사람 중 누구로 소개받고 싶어?"라고 물었을 때 여자를 모르는 사돈 남자를 만나려는 여자는 드물다. 당신도 그렇다면, 지금 만나고 있거나 만나고 싶은 사람은 A부터 D까지의 여성들을 골고루 만난 남자일 확률이 높다.

여자를 많이 만나 여자를 잘 아는 남자일수록 당신의 매력에 특별하게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대수롭지 않게 내뱉은 말도 A와 같은 여자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 위험까지 있다. 그런데도 여자를 잘 아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면 말리지 않겠다. 조금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여자를 모르는 남자를 만나 당신이 여자에 대해 가르쳐 주는 편이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지만.

그가 쉽게 하는 표현을 당신이 쉽게 받아 버리는 것도 문제다. 맛있는 밥을 사고 당신이 원하는 선물을 해주는 게 어렵지 않은 그 남자. 마음 열긴 어렵지만 자갑 열긴 쉬운 그의 호의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 주는 게 당신의 진심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다. 오히려 쉬운 여자로 보일 뿐이다. 그의 마음을 열고 싶다면 그의 자갑이 열리는 걸 쉽게 줄게선 안 된다. 다음주에 이어진다.

- 데이트폭력

싫다는데도 강제로... 남자친구가 싫어요

[Upgrade! 반성폭력 감수성! ⑥] '남자 여자 다름' 강요하는 사회가 낳은 폭력
오마에뉴스 김다미 12.09.06 12:11

A씨는 남자 친구와의 관계에서 고민이 있다며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전화를 걸어왔다.

A씨는 평소처럼 데이트하던 중 남자 친구와 함께 모텔에 갔다. 하지만 상관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거부했는데도, 남자 친구는 강제로 성기 삽입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남자 친구와 몇 차례 상관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침으로 들어온 이후 자꾸 그 일이 생각나 가슴이 답답하고, 남자 친구 만나는 게 편치 않아졌다.

이는 상담소 전화로도 문의가 많이 오는, 일종의 '데이트 성폭력'이다. 많은 데이트 성폭력 피해자들은 알었던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무시한 것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를 호소했다. 게다가 이미 상관계를 맺는 사이여서 자신의 경험을 성폭력이라고 명명하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한다.

연애 관계를 포함해 서로 성적인 친밀감을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성폭력이 발생해도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공개하는 일은 드물다.

성적인 관계나 행위는 당사자들만 공유하는 사생활인 탓에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다. 또 위의 사례처럼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불쾌한 성적 행위로 인식하고 넘어가는 일도 많다.

자신이 겪은 일을 성폭력으로 인지해도 상관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여전히 여성에게 도덕적 비난이 종결되는 현실도 사건을 '은폐'하게 만든다.

데이트 폭력을 유발하는 '남자다움'-'여자다움'

데이트 성폭력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별 규범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남자다운 남자'와 '여자다운 여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와 역할 수행 강요는 개인의 다양한 가능성과 특성을 무시한 채 성별 규범에 따라 행동하도록 강요한다.

특히 감정 절제, 강한 욕제, 책임감 등을 요구 받는 남성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타인에게 드러내기 어렵다. 그 탓에 남성의 의사소통은 차별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여성은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로 성장하길 강요받는다. 동시에 여성은 타인을 정서적·물리적으로 돌보는 역할을 하도록 요구받는다. 결국 타인(남성)에게 보호 받으며, (남성을) 보호하는 위치를 감수받는 셈이다.

이러한 성별 규범 내에서 성장한 여성과 남성은 어떻게 될까? 각자 다른 연애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생겨, 결국 데이트 관계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리더하고, 여성은 남성을 돌봐주는 '이성애 연애각본'이 구성된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은 많은 경우 이런 '연애각본'에서 오해로 시작된다. 특히 데이트 관계에서 평소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렵거나 각자의 견해를 고집해 의사소통이 어려우면, 성적 행위에서도 서로의 욕구와 기분을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실제 데이트 성폭력 사건을 해결할 때 살펴보면, 가해자는 피해자도 "일묵적으로 동의했다"며 자신의 행위를 상관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히 당사자 간의 견해 불일치를 보여주는 게 아니다. 발방적인 성적 행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일례로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이나 “여성의 NO는 진짜 NO가 아니다”라는 속담은 여성의 거부 의사가 진실이 아니거나, 거부 의사가 있더라도 물어볼이면 뜻을 굽히게 되어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피해자 역시 어떤 사회적 인식과 자신의 불쾌한 감정, 상처 사이에서 자기의 경험을 어떻게 명명할지 혼란스러워 하기도 한다.

일반적 행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데이트 성폭력뿐 아니라 스토킹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을 범죄로 인식하게 된 지는 그리 길지 않다. 현행법 또한 처벌의 수위가 미미하다. 스토킹이라고 하면, 많은 이들은 여전히 몇몇 유명인들의 사례만 떠올린다.

하지만 상대방의 고백을 거절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자나 전화, 방문 등의 접촉을 통해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주변에서 빈번히 일어난다. 게다가 당사자의 주변인들이 이러한 행위를 사장에 대한 끈기 있는 도전이라며 응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구애 행위를 과연 로맨스라고 여길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데이트 성폭력 해결은 평등과 소통의 관계에 있다

데이트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평소 대화에서 상대방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 견해만 강요하면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관계는 삳각거린다. 마찬가지로 성적 의사소통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물론 남성은 성적인 능력이 탁월해야 하고, 여성은 성적인 관계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문화 속에서 성적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기에 더욱 서로에 대한 일상적 소통을 점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상대방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어느 한쪽만이 힘든 상황을 감내하며 상처 받지 않도록 관계를 정리하는 결단력도 있어야 한다.

더불어 데이트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별 규범을 해체하고,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발현하도록 하는 사회구조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

특히 태어난 순간부터 끊임없이 요구받는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버리고, 타인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을 통해 어렸을 때부터 평등에 대한 감수성을 체화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성별에 구애 받지 않고 평등과 소통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야말로 데이트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적지 않은 해결책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김다미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입니다.

생각거리.

- 합의된 섹스나 스킨십에서도 데이트 폭력이 있을 수 있을까?
-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관용어는 데이트폭력의 어떤 측면과 이어질까?
- 사실 연애의 진밀성과 ‘폭력’의 경계는 너무나도 모호하다. 대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해서는 안 되는 걸까? 서로 경험과 고민을 나눠봅시다.

머니투데이 스타일& 김정은 칼럼니스트 [편집자주] 썸, 요한 단어가 등장했다. 짜릿한 흥분과 극도의 불안감이 공존하는 롤러코스터 마냥, 활짝 활짝 망설여지기도 하고, 간질 간질, 정체를 알 수 없는 간지러움에

마냥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사랑만큼 멀리지만 이별보다 허무한 ‘썸’, 그리고 편식남 편식녀를 비롯한 그 밖의 다양한 ‘썸’에 대한 연애헤럴리스트 김정은의 토크 킬레이.

[김정은의 썸<33>] 아름다운 꽃병보다 무서운 건 화려함을 숨긴 채 접근하는 여자들이다]

어른들은 늘 얘기했다. 밤에 휘파람을 불면 뱀이 나온다고. 그런데 아무리 휘파람을 불어도 뱀은 커녕 지렁이조차 나타나지 않았다. 어른이 되고나서야 그 말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둑한 지갑을 활짝 연 남자들이 그 기분에 들떠 휘파람을 부르기 시작하면 호구 냄새를 맡은 꽃병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다. 최근에는 유명인의 여유를 통해 꽃병이란 단어가 정화되고 있지만 일반인들 중에서도 꽃병의 피해자는 상당하다.

꽃병은 실제로 존재하는 파충류이기도 하다. ‘올모기’라고도 하는 ‘유혈목어’라는 뱀이 있는데 이 뱀을 보통 꽃병이라고 부른다. 한국에서 가장 흔한 뱀으로 전신에 꽃이 핀 것 같은 알록달록한 빛깔의 무늬가 있다. 신경 독을 갖고 있어 물리면 근육이 경직되고 호흡이 곤란해진다. 전신내출혈이 일어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도 한다. 파충류든 사람이든 물렸을 때의 증상은 비슷한 것 같다. 그 충격으로 사고가 정지되며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소문은 경직된 상태를 지속시킨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게 되면 두동 및 현금출혈이 시작된다. 승소여부에 상관없이,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맞먹는 타격을 받는 게 보통이다.

뱀은 욕망의 화신이다. 욕망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허물을 벗고 꽃병은 옷을 벗는다. 이런 꽃병들은 클럽이나 술집 등의 유흥가에 주로 서식한다. 요즘엔 스마트폰 어플도 그녀들의 활동범위를 넓히는 데 한 몫하고 있다. 어플을 통해 이성을 만나려는 남자들 중엔 자신감이 부족한 남자들이 꽤 많다. 오프라인에선 여성에게 사랑받지 못해 온라인에서 외로움을 달래는 남자들이 꽃병들의 주 먹잇감이다. 꽃병은 그들에게 호감여부를 여쭈한 후 정해진 호프집에서 만난다.

불용어는 호프집 메뉴판에 4만원짜리 감자튀김이 있다면, 아무리 그녀가 열 자리에 앉아 달콤한 향기를 풍기더라도 감새를 알아챌 법하다. 그런데 순박한 먹잇감들은 그저 그녀의 웃음에 혹해 안주를 시키고 양주를 마시며 몇 십, 몇 백 만원을 계산하기까지 이른다. 꽃병은 여기서 핫돈을 챙기는 방법으로 배고픔을 달랠다. 남자의 성욕을 자극하는 조건만남 복지를 보내 선입금을 요구하는 꽃병도 있다. 이들을 모두 ‘어플꽃병’이라고 부른다.

섹스 후 감감이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해서 합의금등을 뜯어내는 전통적인 수법도 여전하다. 유복한 집안환경 덕분에 대학시절부터 외제차를 몰고 다니던 신세가 있었다. 클럽에서 만난 미모의 여자가 꽤 적극적으로 형에게 대시를 했다고 한다. 두어 차례의 만남 후에 형과 여자는 섹스를 하게 됐는데, 다음 날 여자는 명품백을 요구했다. 백을 사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형에게 겁을 쫓지만 형도 눈독치 않은 사람이었다. 귀찮은 일을 만들기 싫었던 형은 어대원에서 만든 5급 여미테이션 백을 사주는 것으로 일단락을 지었다.

회사로 내용증명이 날아와 호되게 곤욕을 치른 후배도 있다. 데이트를 즐기며 연애를 하려고 하지 말란 그 녀는 역시나 섹스 후에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빙새를 차린 후배가 거리를 두자 따피교과 회사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다. 후배도 변호사를 섭외해 소송절차를 치렀다. 그 후 얻게 된 교훈이라며 알려준 이야기는 오래전 형이 말해준 내용과 거의 흡사했다.

우선 너 자신을 알라. 본인의 능력으로 만나기 힘든 것 같은 미모의 여자가 갑자기 들어올 땐 경계를 해야

한다. 외모가 화려하지 않지만 적극적인 육탄공세를 벌이는 여자도 마찬가지다. 열병이 유희하던 여자가 갑자기 모델 입구에서부터 취한 척을 하기 시작하면 우선 의심할 게 있다. 어떤 반드시 CCTV를 쳐다보아야 한다. 그리고 뻔하면 여자가 계산을 하게 하라. 모델 값을 내는 여자는 드문 만큼 본연의 카드를 쥐어 여자로 하여금 계산을 하게 해야 한다.

여자가 불쾌감을 느낄까봐 도저히 계산을 알릴 수 없다면 녹음이라도 해라. 이 때 중요한 건 단순히 모델에 먼저 가지했다는 발언만으론 승소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나는 그냥 모델에서 잠만 자려고 했을 뿐인데 이 남자가 강제로 추행한 거예요!"라는 진술을 하는 꽃병들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반드시 스킨십과 섹스를 그나마 원하고 있다는 식의 유도발언을 해서 녹음을 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게 꽃병에 당한 남자들의 공통적인 말이다.

언젠가 술자리에서 이런 농담만 전담반의 조언이 다시 등장했고 남자들은 단단히 새겨두고 있었다. 그 자리에 있던 여자들이 한심한 듯 비웃었다. 안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여자 외모만 보고 욕 하는 철없는 남자. 혹은 섹스와 원나잇에 환장한 가벼운 남자들이나 그런 꽃병을 만나는 거라고 말 한다. 발판한 남자들은 다시 이야기 한다. 남자 스펙에 혹해서 나쁜 남자면지도 모르고 빠져 버리는 여자들과 뭐가 다르냐? 그런 남자꽃병들이나 조심하라며 남자들이 말을 이었다. 심지어는 그런 스펙남들만 골라 만나며 그의 능력을 마치 자신의 것인양 생각하는 변종꽃병들이 늘어났다고.

미모를 이용해 지나치게 태우받길 즐기는 여자들도 꽃병과 다를 바 없다는 게 남자들의 생각이다. 법적으로 발전하지는 않으므로 여우와 꽃병의 사이를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협박만 하지 않을 뿐 이들이 데이트와 선물 등을 통해 누리는 금액은 전은 꽃병과 거의 흡사한 경우도 많다. 돈 많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돈 많은 남자를 찾는 건 문제가 없지만,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돈 많은 남자를 만나는 건 문제다. 오빠에 대한 애정으로 아무리 합리화한들 본인 외엔 누구도 설득시키기 어렵다. 남자를 역시 그러한 여자들의 욕망을 역이용해 스스로의 욕구를 더 수월히 채우기도 한다. 당장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서 안 된다. 뺨의 시력은 약해서 아주 가까운 거리만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아름다움이 갖는 파위는 상당하다. 힘으로 상대하기 어려운 천하장사의 웃을 벗기는 방법은 미녀의 말 몇 마디일 테니까. 그런데 반드시 육체적 아름다움만이 꽃병의 무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름다운 꽃병보다 더 무서운 건 그 화려함을 숨긴 채 접근하는 여자들이다.

큰 범죄의 주연공들 중엔 얼굴 예쁜 꽃병이 드물다고 한다. 상하이 한국 영사 섹스 스캔들의 범인인 덩신핑은 대단히 평범한 얼굴이었다. 동녀 꽃병 살인사건의 키지마 카나에의 경우는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외모다. 남자는 여자든, 외모가 화려하지 않다 해서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당신의 경계가 꽤 견고하다면, 그걸 무너트리는 건 치명적인 미모가 아닌 그들의 화술일 거다. 뺨은 혀를 넣을거리며 냄새와 열을 감지한다. 당신의 돈 냄새와 사랑에 대한 열망을 파악하려는 꽃병의 혀를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서서히 독을 스며들게 한다. 그런 독이 더 무서운 법이다.

두 번째, 이성애중심주의

멋져보이는 사람과 달고 싶은 적이 없나요? 학창시절 친구와 알콩달콩 연애와 비슷한 추억을 쌓은 적 없나요? 그럼 그게 동성애였던 적은 없나요? 그 때의 그 감정, 정말 어른을 알대로 '우정' 또는 '동경'이거만 했을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떠올려봅시다. 성적합은 그라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경계의 한정성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렇다면 왜 꼭 남자와 여자만 데이트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 주위에 그리고 어디에나 있는 다양한 성적 지향을 살펴보고, 왜 그 중 '이성애'만이 '정상'으로 여겨지고 행복한 사상으로 의미화되는지 생각해봅시다.

- 성별이분법과 이성애주의

성별이분법과 이성애주의가 얽히고 실린 요지경 세상에 대하여

지금부터 요지경 세상에 판치는 이분법적 두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시는 두 분, 둘도 없는 절친이라는 두 분, 그 이름도 명쾌한 '성별이분법'님과 '이성애주의'님 되겠습니다. '성별이분법'이란 사람의 성별을 여성과 남성 두 가지로만 나누고 그에 따른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성별규범을 강요함으로써 이 세상엔 여성과 남성이라는 두 가지 성 외에 다른 성이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애주의'란 남성은 여성만 사랑하고 여성은 남성만 사랑하고 그 외에 다른 성적 지향이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요, 이 두 분의 힘로는 약히 들어 알고들 계시길 겁니다. "넌 여자/남자답지 못하게 그게 뭐냐"라고 '여성성/남성성'을 교육해서 이분법적 성별규범에 갇히지 않는 우리의 가능성들을 차단해버리셨으며, "여자가 여자랑 연애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이성연애만을 권장하시 이성애에 갇히지 않는 우리의 관계들을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두 분이 고개 곳곳이 쳐들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은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이지요. 두 분이 항상 말씀하시듯이, "생물학적 성(sex)"이 그 근원적인 믿음이며 그 "생물학적 성"이란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도 없고, 바뀌어도 안 된다고(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면 천벌 받는답니다.) 하는 믿음에 그 도의적인 믿음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 번 두 분을 함께 불러봅시다. 성별이분법과 이성애주의! (박박박!) 이렇게 불러 놓고 보면 어색하기도 한 것이 참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성별이분법은 이성애주의와 긴밀하고도 치밀하게 맞물려 들어갑니다. 두 분은 서로가 서로의 지지자이자 증언자이며 필요충분조건이시란 말입니다. 두 분이 찰떡같이 붙어 다니시는 이유가 한 데 있는 게 아니죠. 성별이분법과 이성애주의의 연대는 결국 이렇게 맞물려 다니시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조아오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자하는 야심찬 기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성별이분법에서 이야기하는 여성/남성은 이미 남성을 사랑하는 여성/여성을 사랑하는 남성이라는 성적지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성스럽기' 위해서 날씬해지고 예리여려해져야 하는 이유는 '남성에게 보호받는 여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남자답기' 위해서 데이트비용을 지불하고 근육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여성을 러드하는 남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성적지성은 한 사람의 성별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남자를 연달 내게 하는 여우의 10가지 방법'/'도도한 여자를 사로잡는 10가지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더욱더 여성스러워지기/누구보다 남자다워지기 위한 팁을 나열하는 잡지의 칼럼들을 보세요. 이성애주의 하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바로 그 누구보다 성별이분법적 규범을 잘 수행하는 '여성스러운' 여성과 '남자다운' 남성이라는 사실도 성별이분법과 이성애주의의 연결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성애주의와 맞물린 성별이분법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화장실만 봐도 그래요. 온 세상에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화장실만 허락하는 성별이분법적인 공간 구성은, 동성 간의 공간은 무성적이어서 하고 이성간의 공간은 섹슈얼할 수밖에 없다는 이성애주의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은 어떨까요? 남자라면 온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하고 여자라면 설사 임금노동을 하더라도 집안일을 완벽하게 책임져야한다는 성별이분법적인 분업체계에는, 서로 사랑하는 남성과 여성의 결혼에 의해 만들어진 '정상'가족만을 사회의 기본단위로 인정하는 이성애주의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두가 이성애자라는 전제하에서만, 성별이분법적인 공간과 노동과 관계 맺기와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두 분께서 이런 방식으로 온 세상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든든한 뼈이 바로 오르남에 등장하

있던 “생물학적 성sex”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물학적 성sex”이란 게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에게 여성/남성이라는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구분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모든 인간은 여성/남성 둘 중 하나의 성별로 고정되어 있다는 믿음입니다. 왜 여성은 남성과 달라야 하나요? 여성은 남성과 다른 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왜 여성은 남성과 다른 몸을 가졌나요? “원래” 그래요. 왜 여성은 남성만 사랑해야 하나요? 자궁을 가진 여성은 출산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여성에게는 정소를 가진 남성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여성은 자궁을 가졌고, 남성은 정소를 가졌나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다는 말에는 더 이상 “왜?”를 물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생물학적 성sex”은 성별이본법과 이성애주의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한 고분변의 진리이자 핵심적인 전제입니다.

—, 이쯤에서 진실을 알려드릴까요? 사실 “생물학적 성”은 모든 것의 ‘전제’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진 모든 것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성별이본법과 이성애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만들어 낸 ‘결과’라니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물학적 성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퍼뜨린 ‘결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물학적 성”이란 분의 신앙을 자세히 살펴보다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구석이 속속 등장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만 해도 그래요. 아니 도대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의 성별을 여성, 남성이라는 단 두 개의 성으로 나누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페니스와 클리토리스를 모두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페니스라 하기에는 조금 작지만 클리토리스라고 하기에는 큰 생기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본법적인 모양에 맞지 않는 생기는 대부분 수술을 통해 어느 한 쪽으로 꺾어 맞춰지고, 수술 결과에 따라 여성/남성 중 하나의 성으로 삼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고작 페니스의 유무로 성별이 결정되는 것은 또한 가당키나 한가요? 페니스 또한 우리의 몸에 존재하는 무수한 장기 중의 하나일 뿐인데 말이지요. 여기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생지머리 기준으로, 혹은 관례적인 징상으로 페니스가 있는 사람 아니면 페니스가 없는 사람으로 판명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사람의 외모와 성격, 꿈과 절망, 그야말로 모든 삶이 구획당하고 있습니다. 여처럼 여성/남성이라는 sex부터가 생물학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고 그러므로 자의적이며 상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성애주의와 성별이본법에 맞추어 기획되고 짜맞춰진 것이었습니다.

아기가 좀 더 자랄 때마다 따라붙는 여성/남성의 몸의 차이, 그러한 몸의 차이로부터 비롯된다고 여겨지는 성역할 규범의 차이 역시 말도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쓰는 일이나, 운동선수가 되는 일이나, 여성을 보호하는 일은 남성이 해야 한다.’라는 명령의 전제는 ‘남성이 원래 여성보다 근육이 많이 발달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부터 해서 가족 진부를 돌보고 보살피는 일은 여성이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명령의 전제는 ‘여성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사실’과 ‘태생적인 차이’ 역시도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하면 믿기 어려우나요? 하지만 뒤집어 물어봅시다. 남성이 여성보다 근육량이 많은 것은 사실 남성은 여할 때부터 축구, 농구, 태권도를 하도록/여성은 다소곳한 자세로 조심스럽게 앉아있도록 요구받았기 때문은 아닌가요? 왜 여성의 장기 중 하나인 자궁에는 ‘모성’의 이미지를 부여하면서, 남성의 장기 중 하나인 정소에는 ‘부성’의 이미지를 부여하지 않는 건가요? 어떤 여성은 남성보다 더 근육이 많기도 하고, 또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자궁이 없어도 아이와 함께 살기도 하고, 어떤 여성은 자궁에 있어도 아이와 함께 살지 않기도 합니다. 사실은 흔히 생각하는 ‘여성의 몸’과 ‘남성의 몸’간의 차이보다 ‘여성의 몸’과 ‘여성의 몸’간의 차이, ‘남성의 몸’과 ‘남성의 몸’간의 차이가 더 크고, 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남녀 간 생물학적 차이는 절대적인거야”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동안 발표했던 수많은 ‘과학적’ 연구결과들이 얼마나 허망했던가를 조용히 반추해보소서도 좋겠네요. 예전에는 남성의 뇌 용량이 여성보다 크니까 여성은 남성보다 지적능력에 약하다는 과학적 가설을 모두가 믿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뇌의 크기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또 예전에는 여성호르몬은 사람을 감정적이고 수동적으로 만들고, 남성호르몬은 사람을 이성적이고 능동적으로 만든다는 과학적 가설을 모두가 믿었지만, 결국 호르몬보다는 사회에서 주입하는 성역할이 그런 차이의 원인임이 딱하니 밝혀졌지요.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물학적 차이’는 절대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은 시대에 따라 남성에게 유리하도록 말을 바꾼 사기꾼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성애주의 성별이본법은 여성/남성의 차이를 태생적인 것으로 믿게 하고, 모든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진 sex에 딱히 반드시 여성성/남성성이라는 특성을 가져야한다는 허구적인 믿음까지 함께 퍼뜨립니다.

이 모든 거짓부렁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욱 효과적으로 우리의 가능성을 지배시키기 위해서지요. 그러나 이 상상할 수 없는 무수한 가능성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꺼번에 우겨 넣기 위한 두 개의 방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방에 들어간 개인은 반드시 여러저러한 특성을 가져야만 한다고 명령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모든 개인은 반드시 자기와는 다른 방식의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이 사회의 온전한 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명령하기 위해서요. 여처럼 사람을 집단화하고, 집단에 특정한 성질을 부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구분된 사람들 중에서도 한 집단에 다른 한 집단을 지배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지배할 사람과 복종할 사람이 정확하게 나뉘지 않으면 누가 누구를 지배할지, 어떻게 지배할지도 모호해지고, 결국 지배-피지배 구도의 당면함도 의심받기 마련이니까요. 결국 무엇을 나누느냐,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문제는 누구를 지우느냐, 어떻게 타자화하느냐의 문제와 긴밀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성애주의 성별이본법의 구도를 통해서야만 남성이 여성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남성이라는 정체성은 여성을 타자로 규정하면서 갖가지 열등한 특성을 부여하고, 스스로를 여성과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는 주체로 설명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합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므로 남성이 여성보다 강한 것은 당연해집니다. 남성은 여성을 지켜주는 존재이므로 여성을 착취하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또한 이성애주의 성별이본법의 구도를 통해서야만 귀어를 차별할 수 있습니다. 예초에 남성을 사랑하는 여성/여성을 사랑하는 남성 외의 인간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집단으로 몰아버리고, 그렇게 한데 묶여진 귀어들에게 비정상이라고 여겨지는 갖가지 특성을 부여함으로써 비로소 이성애의 정상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귀어를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하지 않는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여성애자는 국가와 사회에 의무를 다하는 바람직한 국민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애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귀어에게겐 박탈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귀어를 정신병리학적 존재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이성애자는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애자라면 반드시 알아도 될 의심과 혐오를 귀어에게 호도해보아야만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무엇인가를 한 가지 특징으로 환원해버리는 것은 그 무엇을 지배하기 위한 가장 무서운 전략입니다. 그 무엇의 가능성을 제한해버리고, 그 무엇이 차별받고 배제되는 상황 자체가 옳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버리니까요.

이성애주의와 성별이본법, 성별이본법과 이성애주의, 이름 되면 누가 누군지, 닮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나 여였으니 너 거갔는지 이 모든 것이 헛갈릴 정도이니, 두 시궁창본들의 면면이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확실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얽혀서 우리의 삶을 가두고 비틀고 졸고고 있음 또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아파 이것 참 헛부터 때려잡아야 세상이 좀 환해질까 한숨부터 나오기도 합니다만, 또 두 분의 성질을 파헤쳐다보니 사실 그렇게 무작위임용사는 아니더만요. 보셨다시피 두 분께서 자랑해마지않는 생물학적 성 또한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그랬다고 믿도록 만들어진 것’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생물학적 성의 이본법적 구획이 존재해서 성별이본법과 이성애주의란 무사당연하노라 주장하는 그 몸은 마치 하나님은 누구냐하면 예수의 아버지요 예수한 누구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노라 주장하듯 오순의 순환고리에 빠져있음이 확실해보입니다. 관제와 결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절대 장담이한 것을 수 없는 고리 속에서 우리들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관계’도 자연스럽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며, 결국 그런 ‘관제’를 통해 나왔다고 외치는 ‘결론’ 또한 허술하기 그지없는 것일 따름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별이본법과 이성애주의 두 분의 거만한 발등을 지그시 크레 밟고, 우리는 X가 되어 사뿐히 날아나 보자구요.

2009. 8. 29.

- 연세대학교 여성계 <나의 성은 X다> 자료집

- “여성스럽기” 위해서 날랜체지고 여러러려해져야 하는 이유는 ‘남성에게 보호받는 여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남자답기’ 위해서 데이트비용을 지불하고 근육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여성을 리드하는 남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이 말대로 여성다움 또는 남성다움이 외부에서 강요되기만 하는 것일까? 오히려 여성답기를 또는 남성답기를 희망하고 욕망하는 개인들이 요새는 더 많지 않나?

- 성별이분법을 성립하는 학문의 경우, 이례까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강조해 온 많은 이론들이 허구적이라고 지적한다. 그런데 물리적 힘의 차이 같은 유의미한 '차이'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어떤 '차이'를 거부하고, 어떤 '차이'를 존중해야 되는 걸까?

[참고자료] 다양한 성소수자

탈!이성애중심주의가 생소한 당신을 위한 친절한 안내서

이성애주의

heterosexism,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등과 비슷한 개념으로 오로지 이성애만이 옳다고 여기는 태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성애적이지 않은 행동이나 정체성, 교제, 커뮤니티 등을 부정하며 모욕하고 낙인찍는 이데올로기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또한 이성애중심주의는 단순한 이성간의 교제만이 유일하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이성 (혹은 동성)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남성우월적인 태도 및 전통적인 성역할의 강화도 포함합니다. 유사개념인 호모로비아와 이성애주의를 비교하자면, 호모로비아는 개인 차원의 반동성애적인 태도 혹은 행위와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는 반면 이성애주의는 사회적 차원의 이데올로기나 비이성애자를 억압하는 기제를 논하는 데 주로 쓰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애중심주의

이성애주의의 이데올로기 기능에서 비이성애를 주변화하고 타자화하는 것에 초점을 둔 단어입니다.

이성애자

장신적, 육체적 끌림을 자신과 다른 성을 가진 사람에게 느끼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스트레이트(straight)라고도 부릅니다. 이성애자로서 정체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회가 재현하고 있는 이성애중심적 이성애자본과 자신의 경험을 분리시켜 바라보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체화에 대한 고민 없이 자신을 이성애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퀴어(Queer)

퀴어의 사전적 의미는 '기묘한, 이상한, 괴상한'입니다. 처음에는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지만 80년대 이후 미국에서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에 의해 긍정적 의미로 수용되었습니다. 퀴어한 동성애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LGBTAIQ 등 모든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용어로 발달하였는데, 광범위하게는 성별정체성에 대한 모든 정상성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일컫기도 합니다.

성적지향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지속적인 정서적, 낭만적, 성적인 끌림을 뜻하는 단어. 이성애지향, 성적 지향, 양성애자적 성적 지향, 동성애자적 성적 지향으로 나뉩니다.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

자신의 성별에 관한 근본적인 감정, 즉 자신을 어떠한 성별로 인식하는가에 따른 정체성.

LGBTAIQ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인터섹슈얼Intersexual, 퀴스처닝Questioning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레즈비언(Lesbian)

게이라는 단어는 원래 여남 동성애자 전부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대부분 남성 동성애자에 국한되어 사용됩니다. 여성동성애자를 표현하는 말로는 레즈비언어 있습니다. 레즈비언이란 여성에게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인 이끌림을 갖고 자신을 여성 동성애자로 정체화한 사람을 뜻합니다.

게이(Gay)

게이 또는 동성애자는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으로 동성에게 끌리고 그러한 자신의 지향을 받아들여 스스로를 동성애자로 정체화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동성애에 대한 성적 쾌락을 느끼거나 동성과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동성애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동성연애 혹은 동성연애자라는 표현은 동성간의 성행위에만 초점을 맞춰 동성애 자체를 곡해한 말이라고 지양해야 합니다.

바이섹슈얼(Bisexual)

바이섹슈얼 또는 양성애자는 동성과 이성의 구분이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인 관심을 갖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트랜스젠더(Transgender)

트랜스젠더 또는 트랜스섹슈얼은 육체적 성과 정신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만 transsexual은 sexual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성을 나타내기 위한 더 넓은 개념으로 transgender를 사용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남성의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성으로 자신을 정체화 하는 경우는 M TO F 트랜스젠더라고 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F TO M 트랜스젠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에이섹슈얼(Asexual)

에이섹슈얼 혹은 무성애자란 성적 욕구가 없거나, 다르거나, 성적욕구가 있으나 특정 대상을 향해 지속성을 갖지 않거나 혹은 기존 논의와 성별지향에 걸리지 않길 원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인터섹슈얼(Intersexual)

인터섹슈얼 혹은 간성(間性)은 남녀 두 가지 특성이 혼합되어 나타나거나 둘 다 나타나지 않거나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사람을 뜻합니다. 염색체나 유전자와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 남녀 성기가 함께 있는 경우는 양성구유라고 하며, 간성의 일부에 속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2000명당 한명의 꼴로 나타나며, 대체로 어린 나이에 주변동락을 위해 남녀 한 성에 맞추어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퀴스처닝(Questioning)

퀴스처닝은 LGBT나 어떤 정의로도 자신을 정체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정의로 자신을 잘 설명할 수 없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판섹슈얼(Pansexual)

판섹슈얼은 양성애자라고도 불리며, 사랑하는 상대방의 성적 지향, 성적정체성에 상관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양성애자는 상대방의 성별을 거의 인식하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 양성애자와 오해되기 쉬우나 양성애자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커밍아웃(Coming out)

coming out. 책장에서 나오다(come out of closet)는 구절에서 유래한 말로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정체성을 드러내는 과정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커밍아웃은 1차적으로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에게 자신이 퀴어임을 밝히는 것을 말하지만, 자신이 퀴어임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커밍아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웃팅(Outing)

성소수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 성 정체성이 폭로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소수자라는 것이 큰 불이익이 되는 사회에서 아웃팅은 성소수자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실 자제를 통과시킬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정적 이성애에 대한 논의는 어디로?

우리 문화계가 탈!이성애중심주의 문화제이잖아요. 그러나 당연히 이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겠지요.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보아도 심지어 논문검색을 해보아도 '동성애의 기원이나 원인', '퀴어 운동의 역사' 등등 비이성애에 대한 자료들은 많은데, 이성애에도 이성애에 관한 건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 '비이성애'라는 개념도 '이성애'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긴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고민이나 의심을 해보지 못한 '정상성'에 의문과 고민이 생기게 되면 그 '정상성'이란 것이 도대체 언제부터 어떤 맥락에서 구성되어 왔는지 탐구하는 것이 순서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 '정상성' 자체에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지 않는 것에 관해 '도대체 왜?' 라는 물음표를 끊임없이 붙여가면서 원인이나 기원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것은 무슨 현상일까요.

동성애나 퀴어의 기원, 역사, 원인 등을 탐구하는 그 일련의 과정과 담론에서 비이성애는 대상/타자가 되어 버리기 일쑤입니다. 사실 비이성애의 원인이나 기원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이미 비이성애정체성을 '미해' '인정' 혹은 '해결' 하기 위해서라는 대상화/타자화 하는 경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상황이 이러하니 점점 논의에서 '정상적이라고 여겨져 왔던 이성애'에 대한 고민과 의문들은 사라집니다.

비이성애정체성 자체가 탐구될 수 있을뿐더러 비이성애 정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권력이 당연히 '정상적'이라고 여기지는 사람들에게 있는 양, '비이성애정체성도 인정하느냐 마느냐'라는 논의만 남는 상황을 우리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점점 '그럼 이제까지 당연하게 여겨진 이성애는 도대체 무엇?' 이라는 고민은 사라지고, '이성애'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완전무결한 존재마냥 논의에서 벗어나 당연한 근간처럼 논의의 말바닥에 깔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성애인가', '이성애자라는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사실은 이 질문들이 사회의 정상성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_음무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탈이성애중심주의 문화제 <퀴어의 움직임에는 성> 자료집)

세 번째, 연애와 사랑, 그리고 연애중심주의

꼭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까요? 아니 그리고 사랑하면 꼭 연애해야 할까요? 우리의 선택으로 연애를 하지 않으면 어딘가 오자란 사실일까요? 25살까지 연애 못 하면 손바닥에서 파이어 볼 나간다는 데 그게 정말인가요? 왜 '모름'은 조롱의 대상일까요?

현대 사회에서 연애는 필수조건처럼 이야기되지만, 사실은 연애가 아닌 다양한 관계가 존재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연애도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만들어 나가는 다른 관계들 중 하나일 수 있어요.

- 관계의 맥락에서 연애

우리들의 용감하고 당당한 연애변주곡을 기대하며

막하

2002년 12월 25일,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셨다. 초등학교 6학년에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니?'라는 고민을 던져준 톨스토이는 책의 마지막에서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사는 거여.'라고 심히 명쾌하게 진언했다. 이 책이 써진 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서점의 스테디셀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랑', 특히 연인들의 사랑은 수많은 서사에 녹아 영감을 거듭하는 세월에도 조금씩 다를 순 있지만 변화무쌍하고 숭고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톨스토이는 연인만의 사랑을 말하지는 않았다.) 물론, 아직 25살인 내가 강하게 대항한 사랑 담론을 풀어낼 순 없을 거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며 최선을 다해 연애하고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자력으로 사랑을 이야기 한다면, 아마 요즘 또래 친구들의 연애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연애지상주의 사회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의 약속에서 빠지지 않는 이야기는 "너 요즘 연애하니?", "연애는 어때?" 다. 게다가 연애를 하지 못하면 무언가 결핍된 것으로 볼 정도로 연애는 당연한 것이 돼버렸다. 오죽했으면 '모태솔로', '솔로부대', '솔로천국 커플자옥'이 "오른" 이야기가 되어버렸을까. 오늘날의 20대를 관통하는 단어로서 취업과 학장에 연애가 들어와 어느 세 나만히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 TV에서 연애를 사적인 것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와 연애고민 나누는 프로그램이 봇물처럼 흘러넘친다. '우리는 그랜라이트일까?' 라든지 '뽕을 탄다.' '연애관계를 확정하기 전에 서로 실연을 느껴거나 호감을 느끼는 연애 전초전' 정도로 해석하면 좋겠다. 이는 인터넷 신조어도 고유어처럼 굳었다. SNS에서 큰 인기를 끄는 콘텐츠들은 온통 연애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서 이뤄지는 격한 공감과 갑론을박들은 어떤 담론보다도 뜨겁다. 과연 연애지상주의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사회는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언가 부족하다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여서 결핍을 채워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라고 달달한다. 하지만 연애를 하거나 안하거나 그런 본인의 선택이다. 사회에서 만들어낸 기준으로 우열을 가리는 잣대를 들어댔 문제가 아니다. 상대가 없을 수도 있고,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연애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연애를 할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의 연애에 대해서 되도 않는 혼수를 들리고 한다면 분명하게 거절했으면 좋겠다. "내 연애 내기 알아서 할게!"

정제하거나 퇴보하거나

연애지상주의 사회에서 연애담론은 과거에 비해 마치 다양하게 뿔어나가고 진보하는 것처럼 보인다. 확실히 데이트 비용의 계산에서 '더치페이'라는 말을 꺼내는 게 어렵지 않게 되었고, 더 이상 성적 욕망을 풍풍 숨겨 두진 않는 것 같다. 친한 친구들과는 성적실천을 공유하는 경우도 부쩍 늘어난 거 같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연애는 '새 옷을 갈아입었을 뿐' 심적으로는 정제되거나 오히려 퇴보한 경우가 더 많다. 아직도 드라마 속의 낭만적인 연애와 현실연애 사이의 괴리에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있고 연애가 결혼 계도의 오방의 통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성역할은 변함없이 그대로 수행한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여전히 고전적인 연애서적으로 신봉하며 '동굴남'인 여인을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들도 있다. 동성애는 암자로 끌어올려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성애중심주의의 틀에서 내어진 조그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전에 한국여성성진화의 활동가로부터 '여성에게 있어서 첫 경험은 준비되지 않거나 강제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나도 이에 포함이 된다.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졌다. 상대는 대학생 였는데 섹스를 하지 않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 했다. 나는 처음으로 하는 연애고 나의 관심을 표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편지 쓰는 성관계를 했다. 콘돔도 없었고 스스로의 성감대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술을 먹고 "실수로" 그랬다는 오후의 추억같은 큰 이별로 이어졌다.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아직도 드라마 속의 주인공을 부러워하며 그런 연애에서 하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연애가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소비중심의 연애는 아닌지, 이유는 모르지만 서로 상처주고 상처받는 관계에서 고민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런 그런라이프가 아니라 성폭행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인지.

반성 _ '자기'의 오류

나의 경험과 반성에서 발견에 있었던 연애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면, 이별한 연인 중에 연락이 잘 안 되서 헤어진 경우가 있었다. 당시 연인이 자신이 진행하는 일을 일정 캠프에 종강 진행자로서 떠나느라 연락이 잘 안 될 거라고 했다. 나도 이전에 캠프를 같이 준비했었고 연인이 들었던 시간과 노력을 알기에 병행하고 싶지 않아 연인이 연락을 줄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다. 하지만 걱정과 보고 싶은 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지 않는 전화는 어느새 헤어지고 말고들 결정하는 싸움으로 변했다.

연애는 일을 하고 있으면 누구와도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한테 만큼은 다를 거라 기대했고 나는 상대가 하기 힘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이해하고 요구했던 것이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나의 생각과 상대방과의 가치관이 다른 거고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었는데 나는 그것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했다. 상대의 진심을 무시하고 연인의 부족한 점으로 지적하고 혼내고 상처를 줬다. 나의 고정관념도 굉장히 굳건했고 철없던 사랑이었다.

연애를 '자기애'라고 부르는 것은 나와 상대를 일치시키는 의미가 된다. 내가 너고, 내가 나다는 일체감을 확인하는 연인들의 용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자기만의 방식을 연인에게 강요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오류로 남을 수 있다. 연인이고 자기라는 이유로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고정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으니 말이다.

우리들의 용감하고 당당한 연애 변주곡 기대하며

지금의 20대에게 있어 사랑은, 마치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인 회색빛 도시에서 희어진 만들려 못 한 숨이 같다. 취업과 학점 등 '먹고 살 걱정'에 휩싸여 불안하고 파곤한 현대 사회에서 사랑은 유일하게 자신의 순수함과 인간다운 생명력을 실천하고 느낄 수 있는 순수한 영역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기에 연애에서 우리는 많은 공부와 실천을 필요로 한다.

연애는 하나의 관계 맺음이다. 오랜 기간 동안 다르게 살려온 누구와 자신의 삶을 공유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너무 어렵다. 좋아하는 상대를 만나기도 힘들고 만났다고 해서 행복하고 웃는 날 만큼 싸우는 날도 많다. 세상에 수많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연애들 중 우리들은 어떤 흐름에 속해있는지 성찰하고 나아가 대안적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해야 한다. 용감하고 당당하게 자신이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건강한 연애를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길 바란다.

(안녕데이트공작소 <http://sogoodbye.org/?p=76>)

1. 관계 '중독'과 관계 '빈곤' 사이에 선 사랑의 낭만성, 실망, 아픔에 대한 이야기

김순남 (성공회대/가톨릭대 강사)

현대의 우리에게 사랑은 고통과 우울이 사랑의 속성이라고 보는 시대도 아니며,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상사병의 비통함이 공유되는 시대도 아니다. 현대의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도 '이 사랑이 맞는가?' 혹은 '이 사람이 내가 정말 원하는 상대인지?', '아니며 다른 대상이 적합한지?' 끊임없이 반문하면서 사랑을 하지만 불안한 감정을 동반한다. 또한 내가 상대방과의 사랑을 끊임없이 반문하듯이, 나의 상대 또한 그럴 것이다라고 인지하면서 나와 나,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자기변화와 자기연치나이어령을 요구하는 시대의 무게를 경험한다. 즉, 사랑이 불안감을 채워줄 수 있는 사회적 존재의 안정과 연결될 때,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사랑'에 걸맞는 지속적인 자기변화를 해야 하는 불안함을 동반하며, 사랑을 하지 않아도 불안해지는 것을 정상화한다. 이렇듯, 사랑을 통한 인정의 욕구와 자기 평가적 의미가 강력하게 결합될 때 사랑하기의 방법과 다양성과 삶의 성장보다는 사랑의 자체성에 더 익숙해질 수 있다. 즉, 상대방이 떠나도 사랑의 아픔과 이별을 통한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배움의 시간보다는 풀한 대저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 먼저 배워야하거나, 사랑을 해도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강박증으로 가거나, 현재의 사랑은 무수한 사랑 중에 단지 하나일 뿐이라는 자기 체면적 자체성에 익숙해질 수 있다.

많은 이혼가들은 인간과 인간의 유대가 불확실해지며, 삶의 조건이 유동성인 사회에서 사랑은 가장 강력한 욕망이며,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며, 사랑은 더욱더 존재의 인식처로 등장한다고 이야기한다. 어느 날, 너무 힘들어 보이는 대학교 1학년 학생에게 '왜 힘들어요?'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사랑하지 않아서요'라는 아주 간결한 대답이 돌아왔다. 사랑이 살아있음의 증명이 되는 시대, 혹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승인적 절차로 계도화되는 시대에 사랑은 삶의 어려움을 넘어서 사랑을 하는 이 순간이 살아있음의 조건이자 토대가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는 사랑을 갈구하지만 그냥 사랑을 하면 되는 시대 또한 아니다. 현대의 우리의 삶은 관계를 깊어 욕망하지만 동시에 이 관계가 나의 자유를 앗아갈지도 모른다는 고민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혼란스런 극복'으로 등장하는 시대이다(바우만, 2013). 즉, 관계에 대한 지독한 열원과 관계공포증 사이에 선 우리는 사랑의 본래 가치인 나와 타자와의 관계성을 통한 성장, 열정, 결속, 희생이라는 것을 통한 삶의 변화에 기반을 둔 감정 그 자체를 배우기 이전에, 관계 중독과 관계 빈곤 사이에서 더욱 취약한 자신을 발견하는지 모른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사랑이 채워줘야 하는 욕망은 사랑에 대한 판타지를 증대시키며, 현실세계의 실제적 관계의 유대보다는, 드라마나, 미디어를 통한 판타지적 사랑을 더욱 강력하게 욕망하게 된다. 이러한 초현실적인 판타지의 증대는 더욱더 사랑의 다양한 방식을 상실케 하며, 현재 우리가 느끼고, 사랑하고, 공유하는 이 세계의 감정을 더욱더 빈곤하게 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에 대한 판타지는 문화적, 사회적 각본이 더욱더 소비를 통한 관계의 유대, 예로써해적가는 여성적 책임, 구체적인 삶의 현실과 감정에 기반을 두지 않은 추상화된 그 어떤 '매력'으로 강력하게 연결될 때 더욱더 증대된다.

(중독)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대에 사랑에 대한 더 많은 공부는 시장의 영역으로 사랑을 온전히 할지라 하기 위해서이며, 사랑의 실패가 존재의 실패로 연결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특히, 여성들에게(주요하게 여성에게) 사랑받기 위해서/하기위해서 끊임없이 애로적인 여성, 무드러운 여성 그리고 동시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여성이 되어야하는 이중적인 요구와 욕망이 거침없이 우리를 내모는 시대에, 유포지 아적인 의미로서의 낭만성, 소비중심의 관계의 계도화에 기반을 둔 사랑의 양식의 빈곤함을 넘어선 사랑하기의 방식에 대한 공부는 삶에 대한 총체적인 질문과 연결된다. 무엇보다, 사랑의 고통이나, 사랑을 통한 성장을 낭비적이며,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하는 시대에 사랑의 경험이 줄 수 있는 삶의 실패, 변화와 그 열정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면서 사랑의 윤리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같이 듣고, 공유하고자 한다.

네 번째. 다른 이야기거리

살면서 사랑을 하기도 하고 연애를 하기도 하고 섹스를 하기도 하죠.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아요.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는 합의와 목적의 경계에서 아슬아슬 줄타기는 어떻게 하면 평등하고 안전할까요?

섹스 전 알아야 할 것

섹스 전 알아야 할 것 대학생에게 섹스에 대한 질문을 받다보면, 성이라는 주제가 은밀하고 조심스러워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다들 섹스에 대한 생각부터 경험에 있지 않아 보인다. 섹스를 하고 싶다는 욕망만 앞서 있고 어떤 섹스가 좋은 것인지, 어떤 섹스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는 듯했다. 대학생이라면 개발 섹스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아두자.

1. 성 역할에 얽매이지 마라

섹스는 인간과 인간이 가장 밀착되어 서로의 체온과 호흡을 나누는 행위다. 어떤 순간보다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 원초적이고 본능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가 정한 성 역할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이성애적인 관점에서, 남녀에 대한 고정된 관념에서 탈피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섹스를 제안하는 것도 남자, 실패 행위에서 리드하는 것도 남자여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자. 이미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성 역할에 대한 구분이 희미해지고 있다. 여자가 섹스의 욕망에 대해 누설하는 것은 재미 보이고 남자가 먼저 유혹할때 은근하게 못 이긴채 넘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절대에서조차 내용 피는 섹스, 재미없는 섹스를 초래할 뿐이다. 여자가 성적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섹스에 있어서 수동적인 여자친구 때문에 욕구불만 상태가 되어 호시탐탐 다른 여자들과 섹스의 기회만 노리는 롬비 같은 젊은 시절을 보내는 것은 얼마나 허망한가? 남자 못지않게 여자도 지식과 능력과 자신만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다. 자신의 욕망과는 상관없이 강압적이고 성급한 남자에게 이끌려 첫 섹스를 치르게 되는 일 바위 바라지 않는다면 여자라서 섹스에 대해 모르고 항구 하고 수줍어해야 한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사회가 정해놓은 혹은 각종 연예지침서에서 정해놓은 여자와 남자에 대한 역할론을 마음껏 비웃어라. 동의 섹스에서 '남자는, 여자는' 이런 거 알고 '너는, 나는'으로 시작해서 서로를 탐구해라. 관계를 단순히 성행위 하고 결혼 내려는 연애 이혼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 다양성을 포기한 세련된 시기일 뿐이다.

2. 처음부터 잘하는 섹스는 없다

저나친 기대만큼 섹스를 맞치는 것도 없다.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좀 더 알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고, 만지고 싶어서 하는 게 섹스라면 풋풋한 순간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면 된다. 아웅에서 '보기만' 했던 현란한 기술을 써보려고 어리치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걱정스럽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뒤로 하고 그냥 먹고 섹스를 했는데 아프기만 하고 좋은 줄 모르겠다며 다음부터 섹스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짓도 하지 말자. 소위 말하는 숙습습어하는 건 하자마자 잘 맞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서로 맞닥뜨리면서 나머지는 가능성이 농후한 섹스에도 붙일 수 있는 말이다.

섹스는 평소 쓰지 않는 근육을 활용하는 신체 활동이다. 스쿼트나 플랭크를 처음부터 잘할 수 없는 것 처럼 섹스도 신체를 발달시켜야 더 나아질 수 있다. 섹스를 시작했다면 피로피로 하지 말고 어느 경지에 도달한 느낌이 들 때까지 돌아서 아주 열심히 인해 탐구를 해보자. 섹스를 통해서 자신의 예로직한 잠재력을 개발하

고 그것을 상대에게 알려주는 것, 좋은 섹스를 하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다.

3. 비싸게 구는 것의 경의를 바꿔라

섹스의 비밀스러운 요인은 사랑이라는 사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섹스가 연인 사이에서 만 가능한 행위는 아니다. 둘 사이의 어떤 가능성을 바라고 혹은 판단하기 위해서 섹스를 해보기도 한다. 물론 다음 일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 순간의 욕망에만 충실한 섹스도 존재한다. 그럴 때 섹스 자체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다음 날 욕망에 굴복하고 만 자신을 괴롭히지 말자. 그동안 서로에 대한 욕망을 키워나갔던 사이라면 섹스를 해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한 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고 나면 욕망하던 것의 실체를 알 수 있다.

철벽을 치며 자지 않고 버틴다고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사람과의 섹스를 경험함으로써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통찰력을 함양하는 일이다. 섹스를 통해 두 사람이 합의된 즐거움을 얻었고 서로의 진솔한 모습을 발견했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섹스를 기대하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두 번째 섹스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결정하고 단호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 다면 하룻밤의 해몽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닌 게 된다. 혹여나 섹스 후에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하더라도 크게 상처 받지 말라는 말이다. 한 번 자고 먹음 변할 그런 사람이었다면 질질 끌면서 관계를 유지 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비슷한 패턴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 경험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현명한 일이었지만 섹스 앞에서 많은 사람이 낙담하고 굴복하게 된다.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자신의 행동이 해했다는 죄책감 같은 것은 느끼지 말자.

4. 외로움은 섹스의 이유가 되지 않아

예상 없는 섹스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겠다. 섹스가 목적인 만남의 유용함도 인정하겠다. 욕구가 충만 하고 힘이 넘치는 청춘기에 방탕하고 음란한 시기를 보냈다고 해서 도덕적 잣대를 들어밀면서 뭐라고 할 순 없는 일이다. 섹스라는 행위도 때를 바탕으로 하는 부역부 반역반의 영역이기도 하고 마음만 먹는다면 남성 보다는 여성이 좀 더 쉽게 경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성경증이 아닌 이상 섹스를 통해 추구하는 것은 타인과의 친밀함이었지만 더 이상 연애를 하며 경정의 요동침을 느끼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상처 입은 대학생들의 고민 상담을 자주 받았다. 그들은 섹스의 욕구는 해소하고 싶기에 내게 원나이트나 섹스파트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묻곤 한다. 섹스도 일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요소를 완벽하게 배제할 순 없다. 그렇기에 건조한 상태 가 아니라면 성불리 행동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 특히 섹스 자체에 대한 강력한 부정 상태가 아니라 단지 외로움 때문에 타인에 필요한 상태에서 나누는 섹스는 상대와 자신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다. 섹스를 통해 애정을 갈구하지도 말고, 자신의 애력을 증명하러 하지도 말고,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을 하지도 말고, 순수하게 섹스만 원하는 것임을 상대도 본인도 잘 이해했을 때 가능한 관계이다. 게다가 이런 조건들은 실상 연애보다 더 까다롭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5. 섹스도 공부하라

섹스는 몸으로 하는 것이고 몸으로 배우는 것이지만 섹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 관계에 관한 것이다. 섹스에 대해 맹목하게 조언을 하는 나 라고 오직 경험으로만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것은 아니다. 간접 경험도 좋다. 하지만 고만고만한 토레의 경험은 한정적이다. 넓은 세상을 보자. 조금 다양한 측면에서 섹스를 고찰해보자. 대학생이지 않은가! 섹스에 대한 지적 탐구를 하자는 말이다.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토레 대학생들이 섹스업리터 와 관련하여 듣는 강의를 우리는 책으로 접할 수 있다. 마리 루티가 강의한 『하버드 사랑학 수업』을 읽어보자. 고전평론가 고미숙의 『사랑과 연애의 달인 호모 에로스』, 사회학자 에바 일루즈의 『사랑은 왜 아픈가』는 대학 신입생들도 이해 가능한 교양 수준의 책이다. 누구에게나 통하진 않는 위약적인 행동 지침이 가득한 연애실용서 같은 걸 읽지 말고 현대 사회에서 사랑과 섹스의 의미를 분석한 책을 읽어 보자. 섹스를 추구함에 있어서 정해진 답은 없다.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추구하려고 하는 섹스가 무엇인지 스스로 답을 마련해보자. 고민 없이 쉽게 얻은 건 금방 잊어버린다. 답을 얻어 물려잡아 삼키는 일은 그만하자. 자신의 몸을 만들고 그 원칙을 지키는 섹스를 하자.

섹스는 몸으로 하는 것이고 몸으로 배우는 것이지만 섹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 인간 관계에 관한 것

한정 egoistyle@tistory.com

대학내일

생각거리.

- 세미나 기획단원 A의 절규: "섹스 전 알아야 할 것에 책임을 잘 하라고 추가하고 싶다. 이것들이 절외사정은 책임이 아닌란 말이다!"
-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기. 부끄러우면 말고요.

- 이 외에도,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짝짝 나누기.